

육추사료 급여단계 줄어들고 있다.

□ 취재/김동진 기자

1. 머리말

산란계의 성성숙 일령이 빨라지는 추세에서 육성기간중 균형된 영양소 섭취 및 체중의 균일도를 유지하면서 사양관리를 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여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높여주거나 사료섭취량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등 사양가들은 어느때 보다 심혈을 기울일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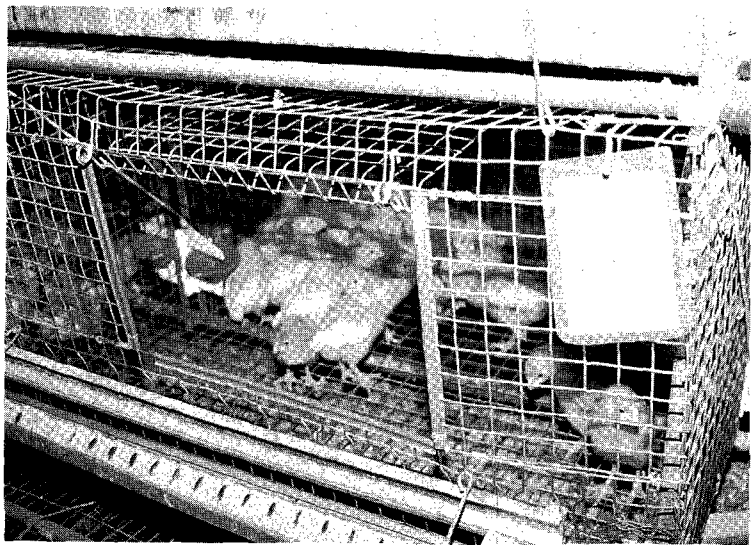
산란계의 능력발휘 여부는 육성기간의 체중 관리에 의해서 대부분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올바른 사료급여를 통한 육추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모든 중추농장이나 채란농장에서는 전체 육성기간 동안 계획된 목표의 성성

숙과 산란성적을 얻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가들 마다 사양급이 방식이 천차만별이고 보통 4~5단계의 육추사료를 권



△ 육추과정은 산란계의 능력의 성패가 좌우되는 관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성숙숙이 빨리집에 따라 대추사료를 생략하고 중추사료만을 급여하는 농장이 늘어나고 있다.

장하고 있으나 단 2단계로 중추를 육추시키는가 하면 어린 병아리때 육계사료를 급여한다든지 체중조절책으로 중추사료를 장기간 급여하기도 하고 대추사료에서 바로 산란사료로 들어가는 농가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또한 사료회사에서는 초이사료나 예비산란사료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급여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요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생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에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육추사료 급여변화와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다.

2. 육추사료 급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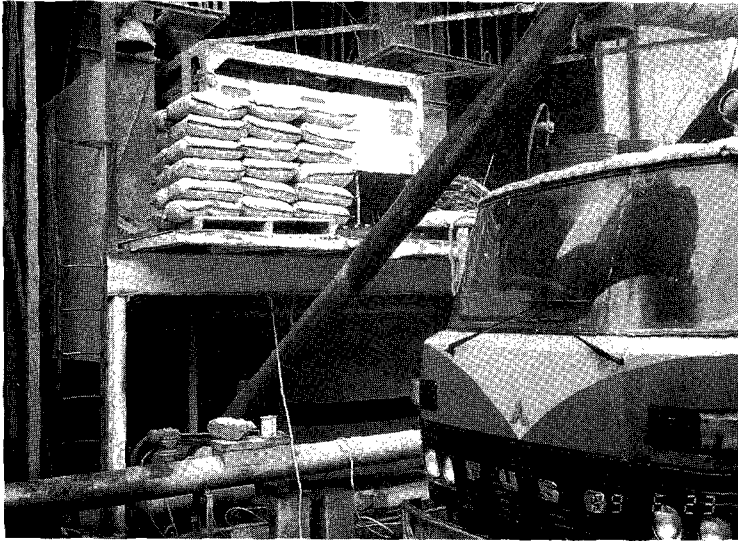
육추사료 급여실태는 품종과 사육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I품종 회사에서의 육성기간 동안 권장되어지는 사료요구 형태를 보면 최근 세계적인 육종흐름을 알 수 있다. 즉 육성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초생추, 중추, 대추사료의 급여기간 비율에서 대추사료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으며 이 품종에서는 아예 대추사료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초이사료(단백질 : 20%, 에너지수준 : 2,950Kcal)를 1일령부터 3주령까지 급여를 하고 초생추사료(단백질 : 19%, 에너지수준 : 2,850Kcal)를 10주령까지 급여

를 하며, 육성사료(단백질 : 16%, 에너지수준 : 2,700Kcal)를 16주령까지 급여를 한후, 예비산란사료(단백질 : 17%, 에너지수준 : 2,750Kcal)를 산란사료를 급여하기 전(2주정도)까지 급여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다음은 국내에서 육추육성을 하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무창 중추농장(A,B)과 개방 중추농장(C,D) 4곳의 육추형태를 살펴보았다.

무창 중추 A농장의 경우 크럼블 사료를 주문하여 42일령까지 초생추 사료를 급여하고 표준체중에 도달했는지를 체크한 후 중추사료로 바뀌 급여를 한다. 그 후 70~90일령에 산란계 농장으로 이동을 시킬 때까지 중추사료만을 급여하고 대추사료는 생략한다. 그 후 16주령부터 칼슘을 공급기 위해 120~125일 초산이 떨어질때까지 예비산란 사료를 급여한다. 이 농장의 경우 초이사료와 대추사료를 생략하였는데 주문사료를 통해 에너지와 영양성분을 높여 이를 보완하는 실정이라 하였다.

무창 중추 B농장의 경우 7~10일 정도까지 육계 어린병아리 사료를 급여하였다. 어린 병아리는 최소한 에너지가



△ 농가에서 원하는 주문사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어야 완벽한 중추육성이 될 수 있다.

높고 단백질 함량이 22%를 급여시켜야 하는데 국내 산란계 어린병아리 사료는 단백질 함량이 19%정도에 그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육계 어린병아리 사료를 급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료공장에서 수요가 적다는 관계로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 실제 구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을 전했다. 이 농장에서는 육계사료를 초생추때 급이하는 것 외에는 비교적 표준체중과 균일도를 바탕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는데 특히 예비산란사료를 16주령에 교체하여 급이를 시키는데 한 계사내로 두개의 사

료빈이 설치되어 있어 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도 큰 계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여분의 벌크통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료를 교체한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중추나 대추 사료에서 바로 산란사료로 교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개방 중추 C농장의 경우 어린병아리때 7~10일 정도 육계어린병아리 사료를 먹인다. 이는 여기에 맞는 산란사료가 국내에는 개발된 것이 없고 있다해도 단백질 함량이 낮아 생산자들이 꺼려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육계사료를 급이했을 경우 콕시듐 등 질병이 거의 없고 빨리크며 골격형성이 잘된다는 것이다. 이 농장의 경우 개방계사인데 무창계사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보통보다 약간 과비를 시켜 농가에 판매한다는 의견도 주어 생산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개방 중추 D농장의 경우 초생추 사료를 7주(49일)까지 급이를 하고 중추사료를 교체하여 17주에 예비산란 사료를 교체할 때까지 급이를 한다. 다만 사료회사에서 기간에 맞는 영양소와 에너지를 요구하여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의외적으로 산란계에 육계사료를 급이하는 것과 대추사료나 예비산란사료를 생략하는 농가들이 많았다. 이는 초이사료나, 예비산란사료가 사양기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로 적용을 해보지 않고 경험만으로 사양을 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육추사료 급여의 문제점

앞에서 각 농장별 사육형태를 살펴보았는데 각 농장마다

육추사료의 급여형태가 모두 다른 것으로 실제 조사결과 알 수 있다. 이는 육종의 발달로 산란계의 시산일령이 짧아져 이에 맞는 급여 프로그램이 계속 변하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함량과 에너지 수준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채 경험에 의한 사양관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육계사료는 어린병아리용으로 생산되는 사료의 경우 22%의 단백질 함량의 제품이 출시되어지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산란병아리의 체중을 조절한다는 목적아래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비산란 사료는 산란을 하기전 최대의 산란성적을 얻기위한 전단계로 급여토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용이 저조하여 사료회사에서도 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심지어 무창계사에서도 무창 전용사료가 특별히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사료를 급여시키는 농장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창계사에서는 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요구량이 개방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즉 유지 및 활동에

너지가 적게 필요하므로 사료 섭취량이 낮아지나 반대급부로 아미노산, 광물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는 농축되어 공급되어야 하며 계군의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져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에너지와 단백질의 영양소 체계를 정립하여 농가에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반사료를 그냥 급여할 경우 영양소 공급부족, 피크전후 과비 발생 및 생산성 저하, 파란발생 소지, 계분양이 많아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 쉽다.

4. 맺음말

사료전문가들은 산란계 육추 사료의 종류를 지금보다도 세분화시켜 사료효율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원하는 주문 사료를 사료회사에서 언제라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은 급여 단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육성급여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닭은 에너지 요구량이 충족되는 만큼 사료를 섭취한다. 사료의 에너지 수준이 낮으면 섭취량이 증가하고 사료에너지 수준이 높으면

섭취량은 감소한다. 사실 사양가의 입장에서는 영양학의 기초이론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며 또한 이해를 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는 사료를 스스로 생산할 수도 없으니 결국 배합사료 회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배합사료업계에서는 판매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주로 가격경쟁에 의존하게 되고 가격을 낮추다 보니 회사의 수익이 감소하여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암암리에 낮추어 거래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사양가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료가 격만 깎을 것이 아니라 우수한 사료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석력이 필요하다. 현 실정에서 육성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대추사료의 급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사양가나 사료업계에서는 서로간의 의견을 절충하여 그 농장에 맞는 사료를 공급하고 급여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둘때 중추육성의 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양계**